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안쓰럽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 마음에 미안하고 딱하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안쓰럽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쳤을 때 마음에 미안하고 딱하다.

안쓰럽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안쓰럽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안스럽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쓰럽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스럽-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안쓰럽-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안쓰러우-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안스럽다

19세기

- 안쓰럽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안스럽-, 안쓰럽-, 안쓰러우-

안쓰럽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안쓰럽다’의 옛말인 ‘안스럽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 제2음절 초성 ‘ㅅ’이 된소리화된 ‘안쓰럽-’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안쓰럽-’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안쓰럽-’, 모음 어미 앞에서는 ‘안쓰러우-’로 나타난다.

문헌 속의 안쓰럽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안스럽-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스럽-

출처 1880 한불자전 6 용례 01

문헌 용례

안스럽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8

용례 02

문헌 용례

안스럽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안쓰럽-, 안쓰러우-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쓰럽-, 안쓰러우-

출처 1928 별건곤 제14호 110면

용례 03

문헌 용례

선생님 조력을 하여 드리거나 하지 못해서 항항 안쓰럽기만 함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9월 23일 6면

용례 04

문헌 용례

그 다음에는 안쓰러운 생각이 낫섯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삼천리 제10권 제10호 77면

용례 05

문헌 용례

더구나 안쓰럽고 애닯었오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안쓰럽다에 관한 주석

‘안쓰럽-’을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을 뜻하는 ‘안’과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를 뜻하는 동사 어간 ‘쓰리-’와 접미사 ‘-업-’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안쓰럽다’가 안이 쓰리

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때의 '-업-'은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서, 동사 어간 '믿-'에 '-업-'이 결합하여 형용사 어간 '미덥-'이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쓰리다'가 이미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형용사 파생 접미사 '-업-'이 결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안쓰럽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안쓰럽다의 뜻과 역사